서 평

# 최재목 교수의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

김용재*

이 서적은 2006년 최재목 교수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일본〔페리칸사〕에서 출간했던 것을 이우진 박사가 한국어로 재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5년 후, 2011년 대만대학교 출판부에서도 『東亞儒學研究叢書』를 시리즈로 출간하던 중, 중국어로 출간된 바도 있다.

한편, 이 책은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의 뚜웨이밍〔杜維明〕, 일본 ICU 대학의 코지마 야스노리〔小島康敬〕, 중국 절강성 국제양명학연구센터 소장 치엔밍〔錢明〕,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충북대학교 김민재 교수 등,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양명학' 관련 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서적의 학술적 가치와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였고, 지금도 국내외적으로도 여전히 많은 독자들로부터 회자되는 서적이다.

이 책의 필자는 영남대학교 철학과에 재직 중인 최재목 교수로, 그는 영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츠쿠바〔축파〕대학에서 '동아시아 철학 및 사상사'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양명학회 회장·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어판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한 역자 이우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왕양명의 공부론」으로 박

* 성신여대 한문교육과 교수 / E-mail: dongjam@naver.com

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어쩌면 이우진 교수가 교육철학 및 교육사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이 책의 가장 큰 논제인 '동아시아 사상사의 흐름'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데에 있어서는 최적의 적임자였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의 상세하면서도 친절한 국역과 역주는 양명학을 전공하는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이 책의 체제는 「서론」을 제외하고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주된 내용 양명학의 태동과 성립을 기점으로 출발하여, 왕수인의 학설이 한국〔조선〕과 일본에 전개되는 양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필자에 의하면 한국・중국・일본의 유교문화권에서의 16세기 이후 사상계는 '양명학'이라는 사조가 분명 존재했었고, 동아시아 삼국에서 양명학은 철학과 정치에 반영된 보편성과 당시 사회가 처한 현실과 지역에 기반한 특수성을 가진 채, 변화와 발전 그리고 때로는 비판과 갈등의 굴레를 반복하며 전개되었음을 전제하고 출발한다. 이후 각 장르별 논제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양명학의 성립과 사상적 특질」: 양명학에서의 최대 관건은 『맹자』에 적시되어 있는 '양능'과 '양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선천적으로 소유한 도덕심과 도덕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매사에 여하히 인식하여 실천으로 옮기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필자는 제1부에서 인간의 마음〔心〕을 '양지'라는 개념어로 설정한 양명학에 대하여 소개하고, 孔孟儒學 이래로 聖人君子가 되어야만 한다는 유자의 당면과제를 본체론적 접근과 공부론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에 공맹유학에서는 "인간이 마땅히 효행과 덕을 쌓아가며 선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실천유학 영역이었다면, 성리학 -그것이 주자학이든 양명학이든 간에-학풍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인간은

왜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가?"의 이치를 규명하는 쪽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소위 철학적 재구성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성리학에서는 만물의 본성이 갖고 있는 이치를 밝혀야만 했으며, 자연스럽게 사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격물'과 '양지'의 양자론은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자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사사물물의 본성에 대한 해석과 관점의 차이에 따라 주자학과 양명학이 분기되었고, 또 양명 왕수인 사후 '양지'의 적극성과 역동성을 강조한 쪽과 소극적이며 공부에 치중하는 측면으로 분기되면서, 양명후예들의 갈등과 논쟁에 대해서도 친절한 설명을 붙여 놓고 있다. 그것은 곧 '왕기'와 '전덕홍'이 천천교 위에서 논했던 '사구교' 논쟁이었다.

이어 제2부에서는 왕양명의 3대 학설 -'심즉리', '지행합일', '치양지'- 중, 그 이론의 종착역이라 할 '致良知'를 하나의 軸으로 설정하고, 치양지론을 다양한 프리즘으로 통하여 발생하는 다채로운 색으로 논제를 구성하여 전개한다.

첫째는 앞서 언급했던 왕양명 사후 양명후학들이 치양지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밝히면서, 소위 양명 좌파니 우파니 운운하는 그 양상들을 충실하게 원전에 입각하여 밝히고 있다.

둘째는 치양지의 이론이 비록 조선에는 온전히 전래되지는 못하였으나, 조선중기 최명길에 의해 약간의 명분을 되살릴 수 있었던 공부방법론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후 조선의 왕양명이라 할 만큼 한국양명학의 태두라 할 정제두가 과연 '양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양명학적 성향을 중국의 양명후학들과 견주어가며 비교론적 관점에서 시사하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양명학 전개 양상이 반드시 양명후학의 영향력을 전제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양명학의 거산인 정제두가

현성양지론 즉 양명좌파를 비판한 성향이라 한다면, 일본양명학의 대표라 할 '나카에 토쥬'와 '오시오 츄사이'는 양명 후학 중 어느 분파에 그 좌표를 그려넣을 수 있을지를 담론의 주제로 삼고 있다.

이렇듯 필자는 중국의 왕양명 철학과 그의 후학들의 이론을 천착해 놓은 후, '정제두'를 위시로 하는 조선양명학과 '나카에 토쥬'를 대표로 하는 일본양명학의 성향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자유로이 넘나들고 있다.

제3부에서는 왕양명의 치양지 학설이 갖는 중층적·이중적 구조가 만물에게까지 확대 가능한 '만물일체론'으로 거론하면서, 이에 준거하여 한국·중국·일본 양명학 풍조가 당시의 사회사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經世觀의 흐름을 진단한다.

중국은 양명학이 흥기하던 즈음 자본주의의 맹아와 士農工商의 신분제에 대한 동요가 일어났던 만큼, 양명의 '만물일체론'을 계급평등의 시대적 요청과 결부시키면서 共生과 救世의 사명감을 가진 실천중심의 動的 철학으로 확산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조선에서의 양명학은 여전히 주자학의 그늘에 가려 개인의 도덕수양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그 빛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靜的인 만물일체론으로 귀결시킨다. 이에 반하여 일본에서의 양명학은 천황과 무사계급 사이의 현실적 입장과 이익을 고려하며 매우 실리적인 근세사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음을 밝혀내고 있다.

제4부는 「인욕론」이라는 표제어를 붙이면서, 이 역시 치양지론의 중층적 구조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전제하고 서술한다. 필자에 의하면, 양명학에서 바라보는 '욕망'에 대한 자세는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울지를 문제의식으로 삼는다. 과연 인간의 욕망을 긍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욕망을 줄이는 寡慾이 정답일 것인지를 비교한다. 그에 따르면 양명후학으로 소위 양명좌파의 대표라 할 '이탁오'와 '하심은'은 사욕 긍정론을, 그리고 주자학 학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던 조선은 '허균'과 같은 욕망 긍정론이 한 때 양명학적 성향으로 대두되며, 조선후기 문학계에서도 인간의 자율적 의지와 주체성을 강조한 자유로운 상상력의 소설이 선보일 수는 있었으나, 결국 정제두와 같은 조선양명학의 태두 역시 욕망 부정론 내지는 임정종욕을 경계하는 수양론을 강조하였다고 소결을 맺는다. 한편 일본양명학에서는 아예 '무욕론'으로 무장하였는데, 이는 '나카에 토쥬'와 '오시오 츄사이'가 현성양지론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관한한 무욕론으로 전개했다는 아이러니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제5부에서 필자는 자고이래 유학의 최대 관건이라 할 '상도'와 '권도', 또는 '경'과 '사'의 입장을 '양명학적 가치 판단에 준거하여 볼 때, 과연 이들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비교론적 논증으로 전개한다.

중국에서는 '왕기'와 '이탁오'가 經의 권위를 상대화시키는 형태로 저하시켰다면, 조선은 최명길・장유・정제두로 이어지는 양명학에 가까운 학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측면으로 오히려 더 강화되는 면모를 보인다고 진단한다. 또 일본의 '나카에 토쥬'를 비롯하여 그의 제자 '구마자와 반잔' 등은 '경'을 철저하리만큼 상대화시키면서 '권이 곧 도'라는 주장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끝으로 제6부에서 필자는 '儒・佛・道 삼교일치론'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양명학 안에 내재되어 있는 '노장사상'과 '불교'에 대한 이론이 태생적으로부터 어떻게 출발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불・도 삼교에서는 각각 有・無・虛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주장하는 현세와 내세 그리고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었음을 감안하여, 왕수인이 섭렵하였던 방대한 사상계를 삼교에 부합시킴으로써 유불도의 일치와 분리 양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개연성

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조선에서는 순수 유교 측면에서의 성리철학 일변도로 발전·전개되었다고는 하나, 필자는 허균과 같은 노장사상에 경도된 학자도 존재하였음을 부연하면서, 그럼에도 대부분의 조선 유자들은 유학의 순수이론을 강화시키면서 성리철학의 경계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음을 서술한다.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교의 범주를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중국과 다르고 조선과도 다른 삼교일치론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서적이 가져다주는 학술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사족이 필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 대만대학교에서의 연구총서 등, 국내외적으로 이미 많은 이들로부터 높은 인지도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책이 갖는 항구적 가치와 학문 후속세대들이 꼭 간직해봄직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는 동아시아 양명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사류의 문헌과 인물의 문집 안에 있는 원전을 충실하게 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의 이러한 학문연구 및 학술적 입론의 근거 제시는 향후 동양사상 및 경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동양사상이나 경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겪는 흔한 실수가 바로 원전과 문헌을 도외시하는 학풍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양사상에 대한 연구수준은 정당한 잣대의 기준 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 재생산하는 형국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연구의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수공업 단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풍부한 典籍에 대한 종합적 목록 하나 가지고 있지 않고, 전통 사료로서 가장 풍부한 寶庫라 할 『朝鮮王朝實錄』의 전산화도 이제 겨우 체제를 완성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의 철학내지 사상' 또는 '경학자료' 및 '동양사상' 연구수요의 증대를 충족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더 이상의 연구 진전을 기대하기란 실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증대되는 한국학 연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양사상 연구의 세밀화와 체계화 그리고 효율화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위해서라도 문헌과 원전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은 매우 시급하다.

해방 이후 동양철학과 경학 연구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학문적 연구방법론이 도입·개발되면서, 상당한 분량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동양사상에 관한 연구가 과연 양적 성장에 부합할 만큼, 합당한 내실을 다져왔는지에 대해서는 自省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계량적 측면에서는 눈부신 연구성과를 창출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연구자료로서의 원전을 토대로 세심하고 꼼꼼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원문)'과 문헌에 대한 고려 없이, 열악한 자료를 마구 이용하여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 온 것 또한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계량위주의 업적 산출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논증을 거치지 않고 가설 수준에 머물 결론을 무책임하게 도출한 예도 비일비재하다. 또 학계에서 아무런 공신력을 확보하지도 못한 선행논문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논문을 산출해냄으로써, 앞선 논문의 결론이 허물어지면 나머지의 연구결과도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졸속적인 연구 자세는 분명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양사상 및 경학 연구의 기초는 일차적으로 '문헌'과 '원전자료'에 대한 천착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라는 서적은 한국·중국·일본 양명학 연구에 있어 매우 철저하게 원전을 논거로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저자가 주장하는 諸학설들에 신뢰가 깃들며, 그의 논증 또한 논리적 정합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여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이 서적에서 간과할 수 없는 유의미한 점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한국・중국・일본- 내에서의 양명학과 연계된 제이론들을 '비교론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양명학에서 제창되었던 학설들을 고리로 하여, 한국(조선)・중국・일본 사이에 펼쳐졌던 다양한 논점들을 정교한 구성과 예리한 문제의식으로 그 상관관계를 밝혀주고 있으며, 매번 말미에 가서는 비교론적 고찰이라는 제목을 붙여 小結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이러한 체제는 독자들에게 중국에서 성립되었던 양명학의 학설들이 제각각 조선과 일본의 諸주체들에 의하여 어떻게 수용・비판・발전・심화되며 전개되었는지를 마치 파노라마를 보듯 자연스럽게 풍광으로 이어주고 있으며, 독자들에게는 이해와 가독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철학이 시대적 문제를 다루는 '時習의 학문'임을 감안할 때, 이 서적은 매우 유익하며 유의미한 현실 문제를 담론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현대 인류가 맞닿고 있는 문제점들, 즉 양명학에서의 '만물일체론'을 '환경윤리'나 '난민문제'와 결부시킨다든지, 양명학에서의 '인욕'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인성'의 문제로 소급하여 적용해본다는 것 등은, 양명학이 과거 박물관 속의 미이라가 아니라 현실적 이슈나 고민꺼리로부터 멀지 않은 비근한 철학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라는 서적에 대한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저자 최재목 교수가 스스로 밝히는 내용(본 서적 692-693면)으로 매듭지으며, 이 분야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어주길 소망한다.

"결국 동아시아 세 지역(중국・한국・일본)에서의 양명학 전개는 본래 양명학에서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던 '활발하게 살아있는 場'에 대한 문제를 각각 새롭게 영유하고 부각시키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즉 중국 양명학에서 형성・수립한 형이상학적인 내면의 '장', 이른바 '허・무'는 한국 양명학에 이르면 부정・극복된다. 그리하여 한국 양명학에서는 있는 그대로 눈앞에 광대하게 펼쳐지고 있는 천지만물(외재하는)을 현실 구체의 '장'으로 자각하게 된다. 이는 중국 양명학에서 나타난 내면의 '장'을 (소박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외면의 '장'으로 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에서 형성・수립된 현실 구체의 '장'이 더욱 고유・특수한 것으로서 명확히 자각되는 것은 일본 양명학의 전개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와 같이 양명학은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각각 나름의 '삶의 장'을 형성・수립할 수 있는 소재였다. 곧 양명학은 동아시아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문화의 일면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준 사상'이었다."